

# 전북 성평등 문화 확산 '한뿔'

도내 8개 기관·단체,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는 이름으로 뭉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기상), 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상덕),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진호),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소장 신옥주),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대표 송원),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지식공동체 지지배배(대표 김은혜) 등 8개 기관 및 단체는 지난달 29일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시작됐던 미투운동 이후 전북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여성단체·인권 분야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정책을 제안했다.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문화 확산 네트워크 전북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를 계기로 전북권 5개 문화재단과 문화예술인이 성평등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2021년 공식적으로 구성된 전북 성평등 네트워크는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성평등 인식 확산과 안전하고 평등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북 성평등 네트워크는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성평등 확산을 위해 올해 2개 사업을 진행한다. 5월부터 시작하는 성평등 예술비평 학교는 여성주의 비평그룹 양성을 목적으로 한 워크숍으로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을 병행해 총 10회 실시한다. 성평등 예술비평학교의 결과와 2021년 성평등 네트워크 활동 결과를 토대로 10월에는 성평등 정책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는 이름으로 뭉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기상), 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상덕),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진호),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소장 신옥주),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대표 송원),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지식공동체 지지배배(대표 김은혜) 등 8개 기관 및 단체는 지난달 29일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체결을 계기로 각 기관과 단체 대표들은 각 재단 누리집(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www.jbct.or.kr)을 참고하면 된다.

원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성평등 네트워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재단 누리집(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www.jbct.or.kr)을 참고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어린이날 기념 '우리 놀이 이야기 콘서트'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 5일 체험형 프로그램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놀이 이야기 콘서트'를 전주한옥마을 우리 놀이터 마루담 및 야외마당에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새롭게 마련된 우리 놀이터 마루담 야외마당 개관과 어린이날을 기념해 우리 놀이의 유래를 알리고 가족들이 함께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첫째 마당, 둘째 마당으로 나눠 진행되는 행사는 ▲우리 놀이 이야기 보따리꾼(고누·쌍륙·저포·화가투놀이) ▲우리 놀이 이야기 할머니(엄마·아빠 어릴 적에 추억놀이) ▲우리 놀이 장터(풀각시·장류무 마스크 줄 만들기 체험) 등으로 꾸며진다.

전당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행사 당일 첫째 마당은 사전 접수한 가족만 진행하고, 둘째 마당은 현장 접수로 입장 정원을 지키며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태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답답하고 힘든 일상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우리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선사하고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을 드리고 싶다"면서 "우리 놀이터 마루담을 중심으로 우리 놀이 문화의 인식개선과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당 우리 놀이터 마루담(063-231-1501)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 온라인 어린이 그림 공모전 연다

전주세계소리축제, 20주년 맞아 본상수상작 20개로 늘려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전국의 초등학교생(홈스쿨링 어린이 포함)을 대상으로 3일부터 온라인 어린이 그림 공모를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6월 8일까지이며, 작품 규격은 8절지 평면 작품으로 형식은 자유롭다. 어른의 손이 닿지 않은 순수한 작품을 필수로 한다.

올해 공모 주제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노래와 함께하는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또는 '숫자 20을 기념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나의 스무 살, 20년 뒤의 내 모습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노래와 함께한 시간, 20년 뒤 성장한 내 모습 등을 상상하며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직접 그린 그림을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통해 이메일(sorifestival7@hanmail.net)로 전송하면 된다.

특히 소리축제는 올해 20주년을 맞아 매년 9개 본상 작품을 선정했던 것과 달리 '소리 초이스 20'으로 수상작 수를 확대, 총 20개 작품이 본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

20개 작품 중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대상작에는 전북교육감상이 수여되며, 총 28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한다. 또 특선 및 입선작을 다수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조직위 홍보팀(063-283-839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를 참고하면 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지난해 소리축제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어린이 그림 공모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다"면서 "올해 역시 접수와 시상 등 전 과정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0회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진행된다. /뉴시스

# 콘진원, 콘텐츠 창의 교육생 모집... 월 150만원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1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에 참여할 440여명의 창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한 창의인재동반사업은 미래 콘텐츠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재양성과 창작역량 개발을 위해 전문가와 예비 창작자 간 도제식 멘토링을 진행해 산업계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게임 ▲음악 ▲공연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분야의 교육을 운영할 플랫폼 기관 총 17개를 선정했으며, 이들 플랫폼 기관을 통해 교육생 모집과 콘텐츠 분야별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교육생은 총 440여명을 모집하며,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약 6개월 동안 창작지원금 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멘토링에는 뮤지컬 '팬텀', '그날들' 장소영 음악감독,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태양의 후예' 강동원 음악감독, 마마무, 다비치 등의 작곡 및 디렉팅을 담당했던 김도훈 프로듀서 등이 참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 창작자는 오는 14일 오전 11시까지 각 플랫폼 기관의 모집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콘진원, 한국콘텐츠아카데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 문체부,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26곳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통문화산업에 이끌어갈 청년 초기창업기업 26곳을 모집한다.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해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뤄지는 산업을 말한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전통문화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초기창업기업 25곳과 예비창업팀 50곳은 매출액 증가, 유통망 확장,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 공모 대상은 대표자 모두가 만 39세 이

하며 창업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이다. 선정된 초기창업기업에는 전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 투자유치 등 체계적인 창업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지원하며 기업당 지원 규모는 사업화 자금과 보육서비스 등을 포함해 평균 1억원(1년차 5,000만원·2년차 3,000만원·3년차 2,000만원) 상당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다음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전통문화산업 예비창업팀 50곳을 발굴해 지원한다. 입상한 팀은 사업모델 구체화,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자금과 함께 기초적인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뉴시스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